

## 유기화학 세계 석학 히니교수 초청 세미나

유기화학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인 히니 교수 초청 세미나가 개최됐다.

울산시는 10월25일 오후 2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정밀화학산업 혁신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유기합성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진 영국 Loughborough대학 H. Heaney 교수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울산화학업체연구소장협의회(회장 조양래 위즈캠 대표)가 주관하고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정밀화학사업단과 대한화학회울산지부가 주최한다.

세미나에서는 포항공과대학 화학과 박재욱 교수가 유기반응을 위한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 나노입자 촉매(Recyclable Metal Nanoparticle Catalysts for Organic Reactions),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이순 교수가 'PDP 신공정 및 재료기술 동향, 히니 교수가 프리델크라프츠반응 및 유기구리화합물(Friedel-Crafts Chemistry & Organocopper Chemistry) 등에 대해 강연했다.

H. Heaney 교수는 유기합성 분야의 석학으로 1996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Harold Kroto 교수의 스승이며, 히니 교수의 연구 업적은 많은 화학 산업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Organocopper(유기구리화합물)을 이용한 키랄(Chira) 화합물의 합성은 의·농약품 중간체 및 전자재료 등의 합성에 매우 유용한 합성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세미나를 주관한 울산화학업체연구소장협의회는 위즈캠, 코리아PTG, 송원산업, 피엔아이디, 한국폴리올 등 20여사가 참여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화학저널 2006/10/25>